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글로벌 러닝 팬덤 축제로 자리잡은 '2026 서울마라톤'	3면	100회 맞은 '탐정들의 영업비밀' 높은 몰입력으로 월요일 예능 1위 등극	4면	이번엔 결승에서 만날까... 축구대회 앞두고 구슬땀
----------------	----	---------------------------------	----	---	----	------------------------------

ARMY의 환호, Luux의 응답... 광화문을 물들인 '팬덤 플랫폼'



① BTS 공연이 열린 3월 21일 룩스를 통해 팬들의 모습을 생중계한 'Live Photo with ARMY' 이벤트. ② 이날 룩스에는 공연 카운트다운 영상과 공연장 전경이 매 시간 송출됐다. ③ 룩스 화면을 가득 채운 BTS 멤버 뷔 팬덤 광고, 편성 시간을 사전 공지한 덕분에 많은 팬들이 룩스를 활용하고 SNS에 공유했다. ④ 팬덤 플랫폼 '키왕' 앱을 다운로드하면 음료를 나눠주는 '키왕카' 이벤트에 긴 줄이 늘어선 모습. ⑤ 'BTS 컴백 기념 동아일보 특별판'을 받은 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양희성·박형기·이한걸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을 축하하기 위해 전 세계 '아미(ARMY)'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으로 모여든 3월 21일,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LUUX)'도 역사적인 공연의 일부가 됐다.

룩스 화면은 팬덤 광고부터 라이브 이벤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졌고, 광화문을 찾은 전 세계 아미들과 감동을 함께 했다. 이날을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룩스의 큐시트는 현장 상황에 맞춰 공연 직전까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었고, 실시간 '팬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BTS 팬들과 함께한 룩스

룩스는 행사 당일 오전 6시부터 매 시간 공연 카운트다운 영상을 송출했다. 카운트다운 화면 일부를 분할해 공연장 전경을 함께 생중계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카운트다운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팬들의 함성이 터졌고, 스마트폰을 들어 인증 사진을 찍는 모습이 끊이지 않았다.

매시 59분 30초에는 '안녕', 'hello', 'hola' 등 3개

언어의 웰컴 메시지를 담은 채널A B&C의 '두둥' 콘텐츠가 전 세계 팬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Live! Photo with ARMY' 이벤트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3000m² 면적의 대형 화면은 총 세 차례에 걸쳐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담았다. 보라색 프레임 안에 자신의 얼굴이 담기는 순간, 팬들은 너도나도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특히 공연장 스탠딩석의 팬들을 룩스 화면에 비쳤을 때 현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룩스는 또 BTS 멤버들이 어두운 경복궁 내부를 걷어가는 'BTS 경복궁 스페셜 필름'을 내보내며, 현장 찾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몰입감을 선사했다.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 시간에는 BTS 멤버들의 스틸컷 사진이 순환 송출됐다. 공연이 끝난 후 30분은 넷플릭스가 향후 공개할 BTS 다큐멘터리 소개 영상이 이어졌다.

이번 공연에서 룩스는 '팬덤 맞춤형' 광고 운영 방식을 처음 시도했다. 여러 광고를 순환 편성하던 기존

방식 대신, 멤버별 팬덤 광고의 정확한 송출 시간을 사전에 고정하고 각 팬덤에 공정한 것이다.

뷔 팬덤 광고는 매시 2분·14분·32분·47분, 정국 팬덤 광고는 매시 8분·17분·35분·49분, 제이홉 팬덤 광고는 매시 8분·21분·37분·52분에 각각 고정 편성됐다. 덕분에 팬들은 '최애 멤버'가 룩스를 가득 채우는 장면을 직접 촬영해 SNS에 올릴 수 있었다. 이 영상들은 수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자연스럽게 룩스를 알렸다.

팬심 사로잡은 특별판

룩스와 함께 동아일보의 'BTS 컴백 기념 동아일보 특별판'도 팬심을 자극하며 '굿즈'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번 특별판은 당초 16페이지로 발행 예정이었지만, 팬덤 광고 수요가 몰리면서 24페이지로 증편됐다. 지민, 진, 뷔, 정국, 슈가, 제이홉 등 6개 팬덤에서 총 8개의 전면광고를 실었다. 이날 BTS 팬덤 광고를 지면에 담은 신문사는 동아일보가 유일했다. 일부 BTS 팬카페 회원들은 자체 제작 부채와 함께 동아일

보 BTS 특별판을 자발적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키왕카, 1시간 반 만에 1000잔 완판

이날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앞에는 팬덤 플랫폼 '키왕(Kiwing)' 앱을 다운로드하면 커피와 키왕에이드를 나눠주는 '키왕카(Kiwing Car)' 이벤트가 펼쳐졌다. 준비한 음료 1000잔은 행사 시작 1시간 반 만에 모두 소진됐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일본인 아미들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이들은 앱 가입 시 닉네임란에 뷔의 별명 '태태'를 입력하고, 음료를 들어 저마다의 인증 사진을 찍었다. 키왕카 기획을 주도한 시넥스트팀 배다에 CD는 "키왕카는 단순한 음료 증정을 넘어 키왕을 전 세계 아미들에게 알린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했다"며 "키왕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글로벌 아미와의 접점을 만들어낸 사례"라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 박정서
AD본부 AD1팀 노태진



2026 서울러닝엑스포 현장 모습. 사진=편집국 사진부 신원건

동우

2026. 3. 30 월

START

광화문광장

결승선을 통과하는 하프투 데클루 아세파 선수.
사진=편집국 사진부 박형기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는 서울마라톤 참가자들. 사진=편집국 사진부 박형기



FINISH
잠실종합운동장

글로벌 러닝 팬덤 축제로 자리잡은 ‘2026 서울마라톤’

3월 15일 열린 ‘2026 서울마라톤 검 제96회 동아마라톤’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러닝 팬덤 축제’로 위상을 굳혔다. 올해도 서울마라톤은 세계육상문화유산이자 국내 유일의 세계육상연맹(WA) ‘플래티넘 라벨’ 인증 대회로 개최됐다.

‘기록신문’과 ‘룩스’로 더 풍성해진 마라톤

대회 당일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출발지인 광화문광장부터 결승점인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서울 도심은 러너들의 열정으로 가득찼다. 올해 서울마라톤에는 약 4만 명이 참가했다. 특히 최상위권 러너의 참여 증가가 두드러졌다. 마스터스(일반인) 부문에서 폴코스 완주자 중 3시간 이내에

결승선을 통과한 ‘서브3’ 인원은 1906명으로, 지난해(1154명)보다 약 65% 증가했다.

외국인 러너는 총 70개국에서 온 6000여 명에 달했다. 마라톤 참가를 계기로 한국 여행을 계획한 외국인부터 한국 귀화를 앞두고 자축하는 의미에서 한복을 입고 달린 외국인까지. 다양한 외국인들의 참가는 서울마라톤이 해를 거듭할수록 글로벌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올해 서울마라톤에서는 완주 후의 감동을 활자로 간직할 수 있는 ‘기록신문’을 처음 발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러너의 이름과 기록을 지면에 인쇄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신문’을 선물로 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록신문은 동아일보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신문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LUX)’도 마라톤 현장을 밝혔다. 룩스의 북측 곡면부로 송출된 40초 카운트다운에 맞춰 러너들은 힘차게 출발했다. 룩스를 통한 실시간 레이스 생중계는 현장의 몰입감을 끌어올렸다. 총 30분 이상 진행된 룩스 라이브는 채널A 생방송 화면에도 비추졌다. 출발전, 아디다스와 함께한 라이브 포토 이벤트도 러너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러닝 문화 확장한 ‘서울러닝엑스포’

서울마라톤에 앞서 3월 13~15일 서

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2026 서울러닝엑스포’가 열렸다. 러닝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험형 전시로 운영돼, 관람객 누구나 최신 트렌드와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었다.

사흘간 방문객은 총 3만2042명으로 집계됐다. 러닝 관련 강연 등 전문 세션에는 총 2000명이 참여했다. 이번 서울러닝엑스포는 러닝을 매개로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러닝 문화의 허브’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3월 2일 열린 ‘2026 서울하프레이스’도 서울마라톤과 같은 코스를 미리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러너들의 사랑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코스

를 익히고 레이스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실제로 많은 러너들이 “서울하프레이스를 바탕으로 서울마라톤에서 개인 최고기록을 경신했다”는 후기를 전해왔다.

올해 서울마라톤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 체험, 실천 리허설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했다. 김윤중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마라톤을 전 세계가 선망하는 ‘글로벌 러닝 페스티벌’로 끊임없이 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안중산

AD본부 룩스기획팀 김도형

“수강 인원 늘려주세요”… DAMG 연세대 저널리즘 강의, 높은 호응 속 2년 연속 개설



3월 5일 연세대 연희관 강의실에서 열린 ‘동아미디어그룹과 함께하는 저널리즘의 지평 2026’ 수업에서 연세대 학생들이 강의 커리큘럼 설명을 듣고 있다.

동아미디어그룹과 연세대학교가 공동 개설한 ‘동아미디어그룹과 함께하는 저널리즘의 지평(이하 ‘저널리즘의 지평’) 강의가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수강 신청 ‘조기 마감’

지난해 강의 평가에서 4.75점을 받은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수강정원을 지난해 60명에서 올해는 70명으로 늘렸다. 강의를 공동 기획한 언론홍보영상학부 이나연 교수는 “지난해 첫 강의 이후 미

디어 여러 직군의 역할과 차이를 잘 이해하게 됐다”며 “수강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고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전했다.

올해 수강신청 역시 첫날 조기 마감됐다. 보통 오리엔테이션 이후에는 한두 명의 ‘수강 포기자’가 나오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한 명의 이탈자가 없었다.

언론홍보영상학부 3학점 전공 강의지만 타과 학생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국제통상학과 3학년 김서희 씨는 “어떤 콘

텐츠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현직 언론인의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고 싶어 수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세춘추, 연세교육방송국 등 교내 학생 언론도 수강 경쟁에 뛰어들었다.

학보사 기자와 스포츠 협회 인턴을 병행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4학년 김희중 씨는 “현장에서 여러 난관을 겪다 보니 선배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직접 묻고 싶다”며 이번 강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논설위원 강의·방송국 견학 프로그램 신설

‘저널리즘의 지평’은 뉴스 제작과 콘텐츠 산업의 현장을 전하는 연세대 대표 산학협력형 수업이다. 3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학기 동안 취재기자, 사진기자, 영상취재기자, 예능 PD, 드라마 PD 등 다양한 직군의 실무자가 강단에 선다.

올해는 ‘글쓰기와 칼럼’ 강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강의는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이 맡는다. 중간고사 기간에 광화

문 동아미디어센터와 상암 동아디지털 미디어센터 현장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진 채널A 미러클럽 부장은 “전공 서적으로는 배울 수 없는 최일선 실무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미디어 산업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미래 인재들에게 동아미디어그룹 제작 역량과 콘텐츠를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러클럽 안건우



‘탐정들의 영업비밀’
100회 방송 모습



100회 맞은 ‘탐정들의 영업비밀’… 높은 몰입력으로 월요일 예능 1위 등극 〈동시간대〉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탐정들의 영업 비밀>이 3월 2일 방송 100회를 맞았다. 2024년 1월 첫 방송 이후 생활 속 사건을 다루는 공감형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채널A를 대표하는 예능으로 자리 잡았다.

100회의 원동력 ‘공감의 힘’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탐정이 사건을 의뢰받아 실상을 파헤치고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경찰과 사법 영역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사건을 탐정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준다. 2020년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 탐정의 세계를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프로그램이 100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공감의 힘’이 꼽힌다. 불륜, 학교폭력, 스토킹, 실종, 가출처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사건을 다루면서 시청자들이 ‘나와 내 주변의 이야기’처럼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왔다. 여기에 ‘탐정’이라는 직업을 접목하면서 익숙한 소재도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냈다.

공감의 힘은 시청률로도 이어졌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00회를 앞두고 방송된 98회는 수도권 시청률 3.2%, 전국 분당 최고 시청률 4.9%를 기록했다. 2049 시청률은 1.0%로, 동시간대 예능 1위를 차지했다.

MC 유인나는 “한 프로그램의 MC로서 100회를 맞이한 것은 처음이다. 모두 시청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데프콘 역시 “사람 관계와 삶의 이면을 배우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100회 방송 당일 채널A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에는 “항상 육퇴(육아 퇴근)하고 즐겨보는 방송이다” “200회, 1000회까지 오래 봤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범죄 예방 정보 전달에도 주력

제작진은 단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시청자들이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탐정 24시’ 코너에선 이혼 시 재산 분할부터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까지,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전달한다. 최근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 사건을 다루면서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사기 범죄의 경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사전에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탓하며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제작진은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사건 수첩’ 코너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극

적인 재미와 반전을 더하면서도 특징인이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 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

생활 속 사건을 통해 공감과 재미를 동시에 전달해 온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시청자를 찾아간다. 첫 회부터 프로그램을 이끌어 온 스튜디오D 2CP 김진 PD는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100회를 꼭 채우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종편 최장수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같이 대표적인 스테디셀러이자 연금 같은 프로그램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콘텐츠전략본부 콘텐츠밸류업팀 송수하

팬덤 잡는 시즌제 예능… ‘신랑수업2’ 첫 방송, ‘야구여왕’ 시즌2 확정

3개월간의 재정비 마치고 시즌2 문을 연 ‘신랑수업’, 탁재훈·송해나 합류로 재미 보강



① 시즌1부터 함께 해온 MC 이승철,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한 탁재훈과 송해나 ② 레전드 선출 15인이 모인 ‘블랙퀸즈’ 선수단의 모습.

<신랑수업>이 약 3개월간의 재정비를 마치고 3월 19일 ‘시즌2’로 돌아왔다. 이번 시즌은 이승철을 필두로 ‘연애 1등 스타 코치’ 탁재훈과 송해나가 새로운 MC로 합류하며 기존·돌싱·싱글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시각과 유쾌함을 더했다. 기존 멤버인 배우 김성수와 함께 진이한, 서준영이 새롭게 합류해 각기 다른 연애편을 솔직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탁재훈·송해나 합류로 재미 보강

출연자들이 다양한 만남 속에서 직접 부딪히고 고민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종

은 신랑’의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번 시즌2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지난 시즌 쇼호스트 박소윤과 핑크빛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성수는 한층 깊어진 관계를 보여주며 기대감을 높였다. 새 멤버로 합류한 진이한과 서준영은 그간 작품을 통해 보여준 세련된 이미지와 달리, 연애 앞에서는 서툰 모습과 진솔한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내며 반전 면모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연진의 인간적인 매력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은 방송 밖에서도 이어진다. 지난 시즌 매주 출연진이 참여한 릴스 영상

을 업로드하며 시청자와 소통해 온 제작진은 이번 시즌에도 이러한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즌1에 이어 시즌2 연출을 맡은 스튜디오D 2CP 임정규 PD는 “수업이라는 콘셉트가 자칫 경직되게 느껴질 수 있어, 출연진의 서툰지만 열정적인 모습을 릴스 등으로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팬덤 ‘까망이’와 함께 만든 성장 서사

스포츠 레전드 15인의 여자 야구 도전기를 담은 <야구여왕>은 지난 3월 3일, 4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최종 전적

4승 3패라는 기록보다 빛난 것은 예능을 넘어 ‘여자 야구’의 진면목을 보여준 점이다. 야구 규칙조차 생소했던 출연진들이 실전 경기를 훌륭히 치러내며 보여준 열정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투수 김은아, 장수영, 타자 송아 등 새로운 에이스를 발굴해내는 성과도 거뒀다. 이들의 활약은 팬덤 ‘까망이’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단순한 출연진과 시청자의 관계를 넘어 ‘블랙퀸즈’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는 강력한 팬덤 문화를 형성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곧바로 시즌2

제작이 확정됐다. 4월 트리아아웃을 통해 신규 선수를 총원한 뒤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야구여왕’을 이끌어온 스튜디오E 1CP 신재호 PD는 “부상을 이겨낸 선수들의 투혼 덕분에 단기간에 야구다운 야구를 보여줄 수 있었다”며 “시즌1이 종목에 서툰 선수들의 성장기였다면, 시즌2는 한층 더 강해져 ‘이기는 팀’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콘텐츠전략본부 콘텐츠밸류업팀 신지민

콘텐츠전략본부 콘텐츠밸류업팀 정수민





동아일보 축구팀



채널A 축구팀



동아일보 풋살팀



채널A 풋살팀

이번엔 결승에서 만날까... 축구대회 앞두고 구슬땀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기자회견 축구대회를 앞두고 동아일보와 채널A 축구팀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각각 3위와 준우승을 기록한 두 팀은 이번 대회에서도 나란히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대진표상 서로 다른 편에 배치돼 결승에 올라야만 맞붙을 수 있는 만큼, 우승컵을 놓고 사내 라이벌전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인다.

동아일보 축구팀은 2월 10일 첫 훈련을 시작해 효창운동장과 용산 아이파크물 풋살장 등을 오가며 연습을 이어가고 있다. 역대 최다인 7회 우승 기록을 가진 만큼 성적에 집착하기보다 함께 땀 흘리는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채널A 축구팀은 지난해 처음 결승에 올라

준우승을 차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첫 우승에 도전한다. 그동안 8강 벽에 막혀 있었지만 지난해 결승 진출로 팀 전체의 자신감이 높아졌다. 여자 풋살팀들도 4월 11, 12일 대회를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동아일보 여자 풋살팀 'FC 도발'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서율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풋살장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FC 도발은 올해 6명의 신입 선수가 합류해 전력 한층 두터워졌다. 재작년 대회 8강에 올랐던 채널A 여자 풋살팀 'FC 에이스' 역시 주 3회 훈련을 이어가며 패스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조영형

임원 사칭·계정 재인증 유도... 사내 유입 피싱메일 '주의보'

최근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피싱메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미디어그룹에서도 계정 재인증을 유도하거나 임원을 사칭하는 형태의 의심 메일이 유입되고 있어 임직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내로 유입된 피싱메일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회사 메일 시스템 또는 계정 보안을 사칭해 로그인 재인증을 요구하는 메일이다. 계정 보안 점검, 메일 용량 초과, 인증 만료 등의 문구와 함께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메

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할 경우 실제 로그인 화면과 유사하게 제작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며, 이 과정에서 입력한 계정 정보가 공격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대표 또는 임원 명의를 사용해 직원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지금 회사에 있나요?',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와 같은 짧은 문장으로 직원의 응답 여부를 확인한 뒤 이후 추가적인 지시를 보내는 형태로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공격자가 실제 직원 계정이 활성화 상태인지 확인하고, 이후 보다 구체적인 공

격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업무 협의를 이유로 LINE이나 BAND 등 외부 메신저 그룹 생성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공격자는 '업무를 위해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달라', '그룹을 만든 뒤 다른 사람은 초대하지 말라'는 지시를 전달한다. 이후 직원이 그룹을 생성하면 그룹 참여용 QR코드를 이메일로 요청해 메신저 그룹에 참여한 뒤, 내부 직원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추가적인 피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재무 담당자를 그룹에 초대하도록 유도한 뒤 금전 송금이나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피싱메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링크나 첨부파일을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된다. 대표나 임원 명의의 메일이라도 평소 업무 방식과 다르다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외부 메신저 그룹 QR코드 전달 요청에는 응답하지 말고, 의심 메일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안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문의 : 02-360-0396)

동아닷컴 비즈테크팀 남정우



수상 소식

히어로콘텐츠팀 '누락'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 디지털 콘텐츠 부문 대상 수상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구토고 김수현 이문수 주현우 위은지 기자, 홍진한 차장, 임상아 임희래 ND, 정시은 CD, 김지희 PD)이 2월 25일 제3회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디지털 콘텐츠 부문

대상을 받았다. 히어로콘텐츠팀은 철근 구조를 3D 인터랙티브로 구현하고 붕괴 시 물레이션을 제작해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이승헌 편집국장,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 협의회 공로상 수상



동아일보 이승헌 편집국장이 2월 27일 제20회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언론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KBCSD는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 우수 언론인 및 보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경임 논설위원·보도본부 홍란 기자, 대한간호협회 언론인상 수상



동아일보 우경임 논설위원과 채널A 보도본부 사회부 홍란 기자가 2월 25일 대한간호협회 제9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우 논설위원과 홍 기자는 '의료 대란' 사태 당시 간호사들을 조명한 보도로 간호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보도본부 조현진 차장, 관세청장 표창



채널A 보도본부 전국부 조현진 차장이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월 4일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조 차장은 관세행정의 업무수행에 협조해 국가재정수입 확보와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강태평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① 익숙함에 머물지 않고 맡은 일에 깊이 몰입. 동아일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② 요즘은 광화문 일대 맛집을 알아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 중심에서 근무하게 된 만큼 사육 근처의 다양한 식당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③ ㈜대동환경에너지



박상진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① 사옥에 설치된 냉난방·소방·가스 설비를 빠르게 숙지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 자격 취득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동아일보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② 헬스와 축구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체력을 기를 수 있어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을 받아 꾸준히 즐기고 있습니다.



이병언 / 동아일보
지식서비스센터

① 조직과 팀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겠습니다. 인사 잘 하겠습니다!
② 스포티파이로 숨은 명곡 찾기, 테니스, 등산, 악기 등 운동과 취미 꾸준히 하기.



박상범 / 동아일보
출판국

① 패션, 뷰티, 셀럽 현장을 조목조목 취재하며, 일상에 '즐거움' 한 스펀을 주는 에디터로 성장하겠습니다.
② 요즘 제 관심사는 최근 밀라노와 파리에서 진행했던 패션위크입니다. 특히 한국 셀럽들이 패션위크 현장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을 때, K-컬처의 영향력을 다시금 실감합니다.



채은지 / 동아일보
출판국

① 팀 안에서 빠르게 배우고 자연스럽게 적응해, MMM이 100만에 가까워지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다하며 오래도록 함께 성장하는 믿음직한 에디터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② 저는 요즘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내 취향에 맞게 꾸미기 위해 귀여운 가구들과 인테리어 소품들을 활용하여 방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현지 / 동아일보
편집국

① 독자 입장에서 더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뉴스 그래픽을 제작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그래픽으로 소통하는 동아일보 뉴스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② 카페에서 바깥 풍경을 구경하거나 여유롭게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거나 건다보면 생각이 정리되어 좋아합니다.